

【 해외금융 뉴스: 북미 】

보험회사, 신용정보 사용 제한에 대비해야

-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보험료 산출시 신용정보 사용 문제가 금융위기 이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으며, 보험회사들은 신용정보 사용이 금지되는 경우에 대비해 새로운 분석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.
 - 미국 계리컨설팅회사인 Pinnacle Actuarial Resources의 대표 루즈벨트 모슬리(Roosevelt Mosley)는 미국 손해보험 계리사회(Casualty Actuarial Society, CAS) 세미나에서 신용정보 사용이 계속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험산업은 리스크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야할 때라고 지적함.
 - 모슬리에 따르면 신용정보 사용에 반대하는 법안이 26건이나 주의회에 제출된 바 있으며, 많은 연구결과와 법원의 판결 등도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밝히고, 특히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악화로 많은 소비자의 신용도가 하락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함.
 - 실제로 주당국의 규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데, 아이다호주의 경우 경기침체에 신용정보를 보험료 결정요인 중 하나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한 바 있고, 미시건주에서는 신용정보 사용이 정당한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, 메릴랜드주에서는 실제로 가계종합보험에서 신용정보 사용을 금지함.
- 보험회사들은 신용정보 사용이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해 현재 보험료 산출에 참고하고 있는 요인들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대체요소들을 발굴해야하며, 이러한 과정에서 신용정보가 보험료 산정에 왜 필요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모슬리는 강조함.
 - 모슬리는 보험가입자의 책임감, 리스크에 대한 태도, 안정성 등을 설명할 수 있는 대체변수로 보험금 지급이력, 사고 및 법규위반 이력, 보험가입기간 및 취업기간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힘.
 - 많은 보험회사들이 현재의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지만 일부 보험회사들은 고도의 통계적 기법을 적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고 있으며 보험금 지급이력과 같은 소비자 행동변수를 추가하는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도 강구되고 있음.

(Insurance Journal, 4/14)